



메시트

<Messi +Exit>

PK 실축 메시 “나의 국가대표는 끝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터더포드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리오넬 메시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파 아메리카 결승

고국 아르헨티나에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우승 트로피를 안기지 못한 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가 끝내 눈물을 흘리며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메시는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칠레와의 대회 결승전에서 120분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섰으나 결정적인 실축을 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에서 칠레에 패하며 2회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징크스에 가까운 정도로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메시가 결국 이번 대회를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기로 했다. 메시는 경기 뒤 “나에게 국가대표 팀은 이제 끝났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메시는 소속팀인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칠레와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로 나와 실축...아르헨 2회 연속 준우승

월드컵·코파아메리카 우승 번번이 좌절...눈물 속 국가대표 은퇴 선언

입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8차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4차례 등 총 28번이나 우승했다. 그러나 국가대표팀에서는 성인무대 데뷔 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했을 뿐 정작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우승하지 못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무득점에 그쳤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대회 최우수선수인 ‘아디다스 골든볼’에 뽑혔지만 팀은 독일에 져 준우승에 그쳤다. ‘20세기 축구 영웅’ 펠레, 디에고 마라도나와 달리 국가대표팀에서 성인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메시로서는 이번 대회가 20대가 가기 전 이런 비판을 떨쳐낼 마지막 기회였다. 메시는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칠레에 승부차기 끝에 1-4로 졌던 아픔을

실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열거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수염까지 덩수룩하게 기르고 경기에 나섰다. 이번 대회에 우승할 경우 지난해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 펠레의 통산 우승기록(29차례)을 뛰어넘어 31번째 우승 트로피 수집할 수도 있었다. 결승전까지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부상으로 칠레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 나서지 않았지만 2차전 파나마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30분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역시 메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A매치 55호 골을 넣은 메시는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를 넘어 아르헨티나 통산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새로 쓰며 결승전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결승전에서 메시는 자신을 수비하던 칠레 마르셀로 디아스로부터 전반에만 경고

2장으로 퇴장을 이끌어내며 경기를 장악하는 듯 했다. 그러나 메시는 전반 40분 페널티 지역 안으로 돌파해 들어가다 넘어진 후 ‘할리우드 액션’으로 오히려 경고를 받았고, 수차례 프리킥 찬스에도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메시는 지난해 대회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첫 번째 키커로 나서 골을 넣었지만, 근살로 이과인(나폴리)과 에베르 바네가(세비야)의 연속 실축으로 칠레에 1-4로 패한 악몽이 있었다. 메시는 이번에도 첫 번째 키커로 나서 당시 악몽을 떨쳐내고자 했다. 칠레 아르투로 비탈(바이에른 뮌헨)이 실축한 뒤였던 만큼 메시가 성공할 경우 아르헨티나가 결정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메시의 왼발 슈팅은 높이 뜨고 말았다. 승부차기 실축 후 고개를 떨궜던 메시는 승부차기가 2-4 아르헨티나의 패배로 끝나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연합뉴스

독일 8강행...20년만의 우승 ‘한걸음 더’

북빙 슬로바키아 3-0 완파

‘전차군단’ 독일이 2016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서 통산 4번째 우승을 위해 전진했다. ‘황금세대’ 벨기에에는 헝가리를 제압하고 8강에 진출했다. 독일은 27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릴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열린 유로 2016 16강전에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본선에 첫 출전해 16강까지 오른 슬로바키아를 3-0으로 완파하고 8강에 올랐다. 1972년과 1980년, 1996년 유로 우승 국인 독일은 이로써 20년 만의 통산 4번째 우승에 한 걸음 다가섰다. 또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4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도 이어갔다. 독일은 내달 3일 이탈리아-스페인 승

자와 4강 길목에서 격돌한다. 독일은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전반 8분 만에 결승골을 뽑아내며 리드를 잡았고 전반 41분 슬로바키아에 결정적인 헤딩 슈팅을 막아낸 뒤 곧바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전반 43분 올리안 드라슬러가 상대 왼쪽 골지역까지 돌파한 뒤 내준 공을 고메즈가 왼발로 가볍게 차넣었다. 전반을 2-0으로 앞선 독일은 후반 슬로바키아의 반격에 여러 차례 슈팅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18분 쇠기골을 만들어냈다. 톨루스 스타드 무니시팔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E조 2위 벨기에가 F조 1조 헝가리의 돌풍을 잠재우고 4-0으로 완승했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돼 ‘황금세대’ 불리는 벨기에에는 오는 2일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을 일으키는 웨일스와 8강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손흥민·석현준·장현수 신태용호 ‘와일드카드’

신태용 감독 올림픽 명단 발표 내달 브라질서 두 차례 평가전 8월 4일 피지와 C조 1차전

리우 올림픽 남자축구 대표팀 명단

FW	석현준(포르투) 황희찬(잘츠부르크) 손흥민(토트넘)
MF	박용우(서울) 이찬동(광주) 이창민(제주) 문창진(포항) 권창훈(수원) 류승우(밀레뎬트)
DF	심상민(서울) 송주훈(이도 홀리호크) 장현수(광주) 정승현(울산) 최규백(전북) 이슬한(전남) 박동진(광주)
GK	구성윤(문서)도래 설토모 김동준(성남)

연합뉴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축구 대표팀이 ‘와일드카드’로 손흥민(포르투), 석현준(포르투), 장현수(광저우 푸리)를 최종 발탁했다.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리우 올림픽에 나갈 18명의 23세 이하(U-23) 올림픽 대표팀 최종명단을 발표하며, 석현준(이상 공격수), 장현수(수비수)를 선택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무대에서 공격수 2명을 와일드카드로 선택한 것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부터 와일드카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올림픽 대표팀은 내달 18일 브라질 상파울루로 출국해 현지에서 이라크(7월 25일) 및 스웨덴(7월 30일) 올림픽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른 뒤 피지와 조별리그 C조 1차전(8월 4일)이 치러지는 브라질 사우바도르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표팀 승선 광주 FC 이찬동·박동진

“올림픽서 죽기 살기로 뛰겠다” 이구동성

이찬동 “팀 승점 올리고 갈 것”...박동진 “책임감 느낀다”

광주 FC의 이찬동과 박동진이 리우로 가는 ‘신태용호’에 승선했다.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리우 올림픽에 나갈 18명의 23세 이하(U-23) 대표팀 최종명단을 발표했다. 꾸준하게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았던 광주 FC의 미드필더 이찬동과 수비수 박동진이 최후의 18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림픽의 꿈을 이루게 된 이찬동은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진짜 좋기도 하고 열렬하다. 살면서 한번 나갈까 말까하는 올림픽에 나간다고 하니 좋다”며 “과



이팅 넘치게 경기를 했던 게 결과로 돌아온 것 같다. 매번 죽기 살기로 해왔다. 올림픽에 가서도 열심히 죽기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림픽 대표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축구를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구단에도 감사하다. 좋게 봐주시고 시켜주셔서 국가대표도 하고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올해 팀이 잔류하고 더 높은 목표 6강에 들었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를 구상해봤는데 내가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막차를 탄 것 같다. 진짜 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꿈 같다. 꿈에서 깨야겠다”며 “올림픽도 축구다. 다른 행동에게도 더 볼 것도 없는 것 같다. 다른 것 필요없이 죽는다는 각오로 뛰겠다. 골키퍼와 와일드카드를 빼면 13자리인데 그 힘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그리고 올림픽 대표 박동진뿐만 아니라 광주 FC의 박동진으로서의 모습도 더 보여줄 각오다. 박동진은 “그동안 광주에서 내 이름을 못 알린 것 같아서 아쉽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며 “뚝같이 행동하겠지만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니까 더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겠다. 조그마한 행동부터 실수도 조심하면서 광주의 박동진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